

샬롬,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인도에 다시 온지 벌써 한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인도 비자가 잘 처리되지 않아서 조금해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언제였는지도 모르게 인도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10 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낮 온도가 88-90 도이고 밤기온은 75 도 정도 됩니다. 다행히 훈련센터 숙소안에는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리와 그 주변 지역이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최소 하루에 2-3 번씩은 정전이 됩니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간단히 제가 머물고 있는 YWAM 킹스웨이 베이스에 대해 소개드리면 현재 약 160 명의 전임사역자들이 인도의 11 개 도시에서 YWAM 의 3 대 주요사역인 개척 선교, 훈련, 구제를 통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인도의 수도 Delhi 에서 차로 40 분정도 떨어진 UP 주(Uttar Pradesh)의 Greater Noida base 훈련센터에서 CDTs (Crossroad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를 받고 있습니다. 12 월 24 일까지 모든 훈련을 마치게 되며 내년 1 월 중순부터 3 기 CDTs 가 열릴 예정입니다. 센터에서 강의를 듣는 동안은 매일 말씀묵상, 예배, 소그룹 모임, 기도, Work duty, 체력훈련, 전도와 구제활동 등 정해진 규칙안에서 13 명의 학생과 4-5 명의 간사님들과 합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외에서 머무는 8 명의 간사님들이 더 계십니다. 전체 간사님들중 2/3 는 인도 파송 선교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는 1947 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법적으로 카스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3500 년의 오래된 악습이 뿌리깊게 문화적으로 남아있어서 아직도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다 경제적 약자들을 향한 정부의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YWAM Greater Noida 지역 현지 목사님과 다른 베이스 팀원들과 빈민촌을 찾아가 예배드리고 구제사역과 힌디어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나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임하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3 주간의 강의를 마치고나면 인도 동북부지역으로 약 6-7 주간 Outreach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Outreach 는 DTS 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가 임하는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영적전쟁이 치열하여 모든 팀원들간의 관계가운데 가장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어서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꼭 한번씩은 서로간에 갈등을 빚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팀원들간의 관계를 꼭 회복하고 돌아올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YWAM Greater Noida Base 인도 현지 사역자와 훈련생들과 친선 축구대회 기념

기도제목

1. 열매맺는 삶을 위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삶속에서 경험하고 열매 맺을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성령충만하도록 (항상 깨어 회개하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3. 말씀묵상과 기도생활이 날마다 깊어지도록
4. 남은 DTS 강의와 Outreach 준비를 위해
5.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겸손하고 정결하게 준비되도록